

『영미연구』

제53집 (2021): 45-82

<http://doi.org/10.25093/ibas.2021.53.45>

“돌봄의 교수법”을 찾아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발발과 국내 온라인 영문학교육의 도전

김 유 곤
단독 / 부산대학교

[국문초록]

본 논문은 필자가 2020년 하반기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운영한 학부 온라인 영문학 수업의 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통해 팬데믹 시대에 국내 온라인 교육이 어떠한 어려움과 과제를 지녔는지 함께 점검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부산대학교 영어영문학과 학부 신입생의 전공기초 교과목인 <영미시 입문>과 학부 고학년 학생들의 전공심화 교과목이자 국제어(영어)로 수업을 진행한 <영미 생태문학 읽기>의 사례를 소개한다. 이 글의 목적은 단순히 팬데믹 시대 비대면 온라인 강의의 성공적인 사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온라인 강의의 설계과정에서 학습자를 배려하는 민주적 소통이나 동료를 배려하는 공동체 의식과 같은 교육의 보편적 가치와 원칙을 실천하는 일이 훨씬 더 어려워졌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런 한계를 익명으로 소통할 수 있게 해주는 ‘화이트보드’, 교수와 학습자의 실시간 질의응답 활동을 돕는 ‘슬라이드’, 그리고 협업을 통해 완성하는 온라인 마인드맵 프로그램인 ‘마인드마이스터’ 등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 극복해보려는 일련의 고민의 과정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필자가 수업

사례를 통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크게 ‘상호작용’과 ‘협력학습’이라는 대학 교수법의 보편적 원칙이며, 본문에서는 이 두 가지 요소를 팬데믹 시대의 온라인 교육이라는 문맥 속에서 각각 ‘멀리서 소통하기’와 ‘자기주도적 협력학습’이라는 말로 표현한다. 궁극적으로 본 논문은 국내 온라인 영문학교육이 현재 응급의 단계를 넘어 팬데믹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학생들의 특성과 수요에 맞춘 유연한 수업 진행방식과 함께 디지털 도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돌봄의 교수법”을 수업 설계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역설하고자 한다.

주제어: 응급 원격수업,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팬데믹, 온라인 영문학교육, 돌봄의 교수법

I. 들어가며: “응급 원격수업”

2019년 12월에 처음 등장하여 이듬해인 2020년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WHO)가 범지구적 팬데믹으로 공식 선언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은 개인의 삶과 이웃과의 관계, 국가 간의 교류를 위축시켰을 뿐 아니라 세계의 교육 환경도 크게 변화시킨 계기가 되었다. 유네스코(UNESCO)가 최근 발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1년 7월 기준으로 65개 조사 대상국의 전문대 이상 고등교육 기관에 등록된 학생들 가운데 무려 2억 2천만 명 이상이 대학의 일시적 폐쇄나 수업 단축 등으로 학습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¹⁾ 무엇보다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도시봉쇄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시행되면서 교실에서 진행되는 전통적인 대면수업 대신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원격수업의 비중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유네스코 자료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의 팬데믹 선언 후 1년 반이 지난 2021년 9월 현재에도 유네스코의 조사 대상국 가운데 절반가량은 점차 대면수업과 온라인 수업을 병행하고

있으나 나머지 국가들은 여전히 온라인 수업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계기로 비대면이 일상화된 소위 “뉴노멀”(New Normal)시대를 맞이함에 따라 온라인 수업은 더 이상 대면수업의 보조적 수단이 아닌 대학의 정규 교육방식으로 자리를 잡았다. 그러나 감염병 확산 초기에는 대학의 교직원과 학생 모두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원격교육의 장단점을 인식하고 적응하기까지 한동안 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²⁾ 당시 교육전문가들은 팬데믹 초기의 급격한 학습환경의 변화를 크게 두 가지 시선으로 분석했다. 첫째는 온라인 수업이 교실에서 진행되는 대면수업을 전적으로 대체할 수는 없을지라도 미래의 디지털화된 교육환경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앞당기는 촉매제가 되리라는 긍정적인 시각이다. 두 번째는 팬데믹으로 인해 급증한 온라인 교육이 체계적이거나 안정적인 상태가 아닌 응급의 단계이며 따라서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새로운 수업 설계와 교수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첫 번째 입장을 대표하는 예는 교육사학자 조너선 짐머만(Jonathan Zimmerman)이 작년 3월 미국의 대학신문인 『고등교육 연대기』(*The Chronicle of Higher Education*)에 기고한 「코로나바이러스와 위대한 온라인 학습 실험」(“Coronavirus and the Great Online-Learning Experiment”)이라는 글이다. 짐머만은 1990년대 초반에 시작된 온라인 교육이 지난 30년간 꾸준히 발전해왔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팬데믹으로 인한 교육의 위기가 오히려 지금까지 구축해 온 비대면 원격교육의 성장세를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팬데믹은 미래의 온라인 교육시장의 발전 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전례 없는 자연실험”(unprecedented natural experiments)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어서 그는 “학생들이 온라인에서 배우는 것이 적다면 대학들은 온라인 교육을 위해 들인 막대한 투자를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학생들이 온라인 교육에서 더 많이 배운다는 것을 보여준다면, 나를 포함해 대면교육을 하는 교수들의 일자리는 아마도 위태로워질 것이다”라고 미래를 예측하며 글을

끝맺는다. 실제로 온라인 교육시장은 지난 30년간 이러닝(E-Learning), 온라인 학습(Online Learning), 원격 학습(Distant Learning), 가상교실(Virtual Classroom), 그리고 최근에는 모바일 학습(Mobile Learning)이나 혼합형 학습(Blended Learning) 등 디지털 기술의 발전양상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교육모델을 개발해 왔다. 대학들은 이런 온라인 수업방식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관리하기 위해 캔버스(Canvas), 블랙보드(Blackboard), 무들(Moodle), 구글 클래스룸(Google Classroom) 등과 같은 오픈 디지털 플랫폼을 사용하거나, 국내의 경우 대학마다 자체적으로 학습관리시스템(Learning Management System, LMS)을 운영하기도 한다. 이와 더불어 최근에는 줌(Zoom), 웹엑스(WebEx), 구글 미트(Google Meet) 등과 같은 화상회의의 도구도 비대면 수업을 위해 빈번히 사용되고 있다. 짐머만의 요점은 현재의 팬데믹 상황을 그동안 축적해온 디지털 교육시장의 인프라와 미래의 성장세를 확인하는 시험대로 여기자는 것이다.

팬데믹 상황을 온라인 교육의 효용성 확인을 위한 계기로 삼자는 짐머만의 주장은 교육행정이나 교육경제학의 측면에서 본다면 합리적으로 들릴 수 있다. 그러나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캠퍼스 봉쇄나 수업 단축 등으로 학생들의 교육을 크게 위축시키고 있는 교육환경의 긴급한 변화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분명한 한계를 보인다. 팬데믹 이전의 온라인 교육은 디지털 도구의 사용과 활용에 비교적 능숙한 소수의 교수자에 의해 사전에 철저히 준비한 학습계획표와 충실한 콘텐츠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전통적인 대면교육과 함께 하나의 선택지로 주어졌다. 이에 반해 팬데믹 시대의 온라인 교육은 선택사항이라기보다는 사실상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그동안 디지털 플랫폼에 익숙하지 않았던 교수자와 학습자 모두에게 반강제적으로 주어진 수업방식에 가깝다.

한편, 짐머만이 온라인 교육의 긍정적 기능을 주로 강조한 것과는 달리 온라인 교육에 대해 조금 더 중립적인 태도를 보이는 교육공학 연구자들은 팬데믹 시대의 온라인 교육이 예전과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최근에 “응급 원격수업”(Emergency Remote Teaching, ERT)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 용어를

처음 제안한 찰스 하지스(Charles Hodges) 등은 「응급 원격수업과 온라인 학습의 차이」(“The Difference Between Emergency Remote Teaching and Online Learning”)라는 글에서 전통적인 온라인 수업이 미리 체계적으로 준비된 형태였다면, 팬데믹 시대의 온라인 교육은 마치 전쟁터나 자연재해를 입은 지역에서 흔히 행해지는 천막 교실처럼 부족한 자원으로 긴급히 수행할 수밖에 없음을 지적한다. 교육전문가들 사이의 우스갯소리로 부연하자면, 과거 온라인 수업이 대면수업을 보조하기 위한 일반적인 교수법인 “Pedagogy”라면, 팬데믹 시대의 온라인 수업은 응급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일시적인 미봉책이라는 의미의 “Panic-gogy”라는 것이다(Kamenetz). 하지스가 “응급 원격수업”이라는 용어에서 일반적으로 학습활동을 일컫는 “learning”이 아닌 “teaching”으로 특별히 표기한 것도 팬데믹 시대의 온라인 교육이 긴급한 상황 속에서 양방향의 소통보다는 교수자의 “전달 방식”(delivery mode)에 좀 더 의존할 수밖에 없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3-5). 따라서 “응급 원격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수자의 “전달 방식”을 최대한 다양화하고 정교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와 더불어 디지털 시대에 맞춘 새로운 콘텐츠의 발굴, 학습자 중심의 수업 설계와 평가방식 개발, 온라인 강의를 위한 대학의 투자와 행정지원 등이 중요해진다.

하지스와 유사한 맥락에서 아라스 보스컬트(Aras Bozkurt) 등도 “응급 원격교육”(Emergency Remote Education)이라는 용어를 통해 팬데믹 시대 교육환경의 특수성을 강조한다. 하지스가 교수자 중심의 “전달방식”에 주목했다면, 보스컬트는 31개국의 교육환경에 관한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며 성공적 온라인 교육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습자 중심의 학습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나라마다 사회의 부조리, 경제적 불평등과 빈부격차, 디지털 양극화(digital divide) 현상의 정도가 다르며, 이러한 외부요인들이 직간접적으로 학습자의 수업 참여와 교육 설계에 영향을 주게 된다. 보스컬트는 현재의 “응급 원격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일이 아니라 학습자를 사회적 약자로 보고 배려하는 “돌봄의 교수법”(Pedagogy of Care)이 필요하다고 제안

한다. 팬데믹 시대에 필요한 “돌봄의 교수법”은 먼저 온라인 강의 설계과정에서 학생 개개인의 사회적 환경과 경험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는 일에서 시작하며, 나아가 온라인 교육방식으로 인해 학생들이 느끼는 스트레스나 불안감 등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부분까지 함께 배려해줄 수 있는 포용적인 교육방식을 지향한다(4).

본 논문은 필자가 2020년 하반기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운영한 온라인 영문학 수업의 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통해 팬데믹 시대에 국내 온라인 교육이 어떠한 어려움과 과제를 지녔는지 함께 점검해보고자 한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고등교육 환경에 미친 영향에 관한 거시적 연구는 앞서 언급한 하지스와 보스컬트를 포함하여 교육공학계에서 지금도 광범위하게 수행되고 있다.³⁾ 이런 교육공학 연구자들의 거시적 분석과 이론을 바탕으로 국내 인문학 분야에서도 응급 원격교육으로서 대학의 온라인 수업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연구가 최근에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필자의 연구 분야인 영어영문학 관련 교과목의 경우, 원영선의 「“응급 원격수업”: 19세기 영문학 전공 교과목의 ‘온라인 수업’ 변환사례」(2020), 장선영의 「현행 영어교육과 영문학: 코로나 이후 온라인 토론 영미시 수업」(2020), 그리고 서정아의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온라인 교양영어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연구」(2021) 등이 선구적인 역할을 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영어영문학과 학부 신입생의 전공기초 교과목인 <영미시 입문>과 학부 고학년 학생들의 전공심화 교과목이자 국제어(영어)로 수업을 진행한 <영미 생태문학 읽기>의 사례를 소개한다.

이 글의 목적은 단순히 팬데믹 시대 비대면 온라인 강의의 성공적인 사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온라인 강의의 설계과정에서 학습자를 배려하는 민주적 소통이나 동료배려하는 공동체 의식과 같은 교육의 일반적인 가치와 원칙을 실천하는 일이 훨씬 더 어려워졌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런 한계를 익명으로 소통을 할 수 있게 해주는 화이트보드(Whiteboard), 교수와 학습자의 실시간 질의응답 활동을 돕는 슬라이도(Slido), 그리고 협업을 통해 완성하는 온라인 마인드맵 프로그램인 마인드마이스터(Mindmeister) 등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 극복해보려는 일련의 고민의 과정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필자가 수업 사례 공유를 통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크게 ‘상호작용’과 ‘협력학습’이라는 대학 교수법의 보편적 원칙이며, 본문에서는 이 두 가지 요소를 팬데믹 시대의 온라인 교육이라는 큰 문맥 속에서 각각 ‘멀리서 소통하기’와 ‘자기주도적 협력학습’이라는 말로 표현한다. 팬데믹으로 인해 급속히 확대된 대학의 온라인 교육은 앞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완화되고 일상이 정상화된 이후에도 대면수업과 공존하며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본 논문은 국내의 온라인 영문학교육이 응급의 단계를 넘어 팬데믹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보스컬트의 “돌봄의 교수법”이 제시하듯, 다양한 학생들의 특성과 수요에 맞춘 유연한 수업 진행 방식과 함께 디지털 도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역설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 다룰 필자의 수업사례를 포함하여 각 분과학문에서 온라인 수업의 사례를 공유하는 일은 장기적으로 뉴노멀 시대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믿는다.⁴⁾

II. 멀리서 소통하기

팬데믹 선언 초기인 2020년 3월 별다른 준비 없이 시작한 대학의 온라인 수업은 한국 고등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인 동시에 위기로 여겨졌고 미디어를 통해 주요한 사회적 쟁점이 되기도 했다.⁵⁾ 이후 봄학기가 끝나가던 6월, 국회입법조사처는 「대학의 원격 수업 관련 쟁점과 개선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대략 전국 대학생들의 82% 정도가 온라인 수업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낮은 수업 만족도의 원인으로 교수진의 전반적인 준비 부족과 함께 소통의 부재를 제시했다(조인식 5). 특히 다음 두 구절이 필자의 눈에 들어왔다.

대면수업의 교육내용을 원격수업에서 구현하기 위해서는 원격수업의 특징을 이해하고, 강의에 적합한 매체를 선택하며,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교수와 학생 간에 또는 학생들 간에 상호작용이 중요하지만, 대부분의 교수는 원격수업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여 학생들이 기존에 있던 동영상 자료를 시청하거나 과제를 제출하는 것으로 원격수업을 진행함.

일부 교수는 원격수업에 사용하는 화상회의 프로그램과 동영상 제작 및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학생들에게 교육내용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음. (조인식 6)

대학에서 온라인 수업은 주로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첫 번째는 미리 준비한 동영상 강의나 음성자료 등을 학습관리시스템(LMS)에 탑재하는 비동시적 형태와 줌이나 웹엑스 같은 화상회의 플랫폼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동시적 형태가 있다. 필자가 위의 보고서 내용에 주목하게 된 이유는 학생들의 불만이 온라인 수업의 비동시적, 동시적 형태와는 무관하게 모두 소통의 부재와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온라인 수업의 핵심은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는 디지털 플랫폼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학생들과 상호작용하는 것, 말하자면 ‘멀리서 소통하기’(Distant Communication)라고 할 수 있다. 실시간 온라인 수업이라 하더라도 학생들에게 전공지식만 전달한 채 소통의 과정이 없다면 학습의 만족도는 그리 높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교실에서 학생들과 함께 대화하는 전통적인 대면수업과 온라인을 통해 멀리서 상호작용하는 원격수업은 소통에 쓰이는 도구와 지식의 전달 방식이 다르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그 차이를 강의 설계과정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이유로 최근 각 대학의 교수학습지원센터(Center for Teaching and Learning)는 온라인 수업 참가자들의 상호작용을 증진하는 교수법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거나 공유하기 시작했다. 필자가 소속되어 있는 부산대학교의 교수학습지원센터 또한 팬데믹 초기의 응급상황에서는 화상회의 플랫폼 조작법이나 수업 콘텐츠 제작에 관한 기술적인 내용에 집중했지만, 현재는 “공감수업 전략”, “온라인 수업에서

의 커뮤니케이션”, “학생참여형 온라인 수업”, “온라인 수업의 동기유발 전략”, “팬션을 넘어 소통하기” 등 다양한 교수법 프로그램을 통해 교수와 학생 사이의 쌍방향 소통을 위한 강의 설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온라인 강의에서 ‘멀리서 소통하기’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먼저 디지털 플랫폼의 기본적인 기능과 특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지연 등은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온라인 환경이 오히려 참여자의 상호작용을 확대시키고 증진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팬데믹 초기에 상호작용을 위한 디지털 “테크놀로지에 대한 [교수자의] 지식과 활용능력이 부족”했음을 지적한다(675). 필자 역시 2020 학년도 1학기 온라인 강의가 끝나고 학생들의 강의평가에는 예전과는 달리 부정적인 내용이 더 많다는 것을 발견했다. 디지털 플랫폼 사용에 익숙지 않았던 필자는 당시에 미리 정리한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의 내용을 설명하는 데 주로 집중했으며 학생들과 상호작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 특히 필자는 온라인 수업이 일시적일 것이라 여기며 디지털 도구 활용에 별다른 관심이 없었고,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는 크게 떨어졌다. 예를 들어 수업 중 질의응답이나 토론과정에서 학생들과 효율적으로 상호작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카메라(웹캠)가 켜져 있어야 하지만 학기 초에 이에 대한 원칙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그 결과 컴퓨터 화면 위에는 필자의 얼굴만 덩그러니 표시된 채 학생들의 얼굴은 모두 검은색 창으로 표시되어 마치 어두운 동굴 속에서 혼자 말하는 것 같은 상황이 되었다. 카메라가 모두 꺼져 있는 상황에서 필자는 오직 콘텐츠 설명에만 집중했고 학생들은 검은 화면 속에 앉아 마치 유튜브 동영상이나 녹화된 인터넷 강의를 시청하는 듯한 수동적인 태도를 보였다. 간혹 수업내용에 관한 질문을 던지더라도 직접 호명하지 않는 한 자발적으로 나서는 학생은 별로 없었다. 이후 학기 중반부터는 소통의 필요성을 인식하며 줌의 상호작용 도구인 채팅과 소회의실 기능을 사용하기 시작했지만, 이미 익명의 상태에 익숙해진 학생들은 교수의 물음에 먼저 응답하거나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주저했다. 필자는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2학기부터는

학생들에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카메라를 켜도록 유도했다. 프라이버시를 걱정하는 일부 학생들의 경우 마스크를 쓰거나 가상 배경을 사용하게 했으며, PC에 웹캠이 없는 경우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의 카메라를 보조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안내했다. 그 결과 이전과는 달리 수강생들의 방관적 태도가 크게 줄어드는 것을 경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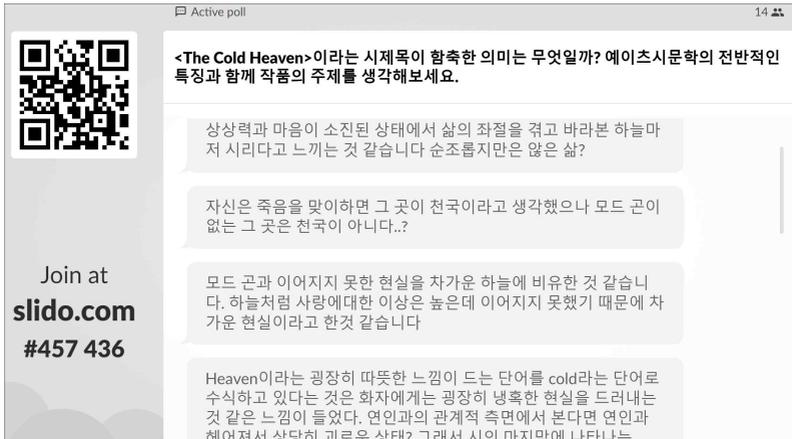
필자가 온라인 수업에서 사용한 줌과 같은 화상회의 플랫폼은 사용자의 목적과 운영 방법에 따라 “중계형 미디어”(Broadcast Media)가 되거나 “소통용 미디어”(Communicative Media)가 될 수도 있다. 중계형은 교수가 콘텐츠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일대다”(one-to-many)의 위계적 소통방식이라면, 소통형은 교수와 학생이 수평적 관계에서 상호작용하는 “다대다”(many-to-many)의 열린 소통방식이다(Bates 232). 필자가 2020학년도 1학기의 실수를 상기하며 이후 온라인 강의 설계에서 가장 많이 고민했던 부분 또한 ‘어떻게 하면 줌이라고 하는 디지털 플랫폼을 지식 전달만을 위한 중계형 미디어가 아닌 소통을 위한 열린 채널로 사용할 수 있는가?’였고, 이를 위해 주로 두 가지 디지털 도구를 활용했다. 먼저 상호작용 확대를 위해 가장 빈번하게 사용한 도구는 줌에서 간단한 필기와 스케치를 할 수 있는 화이트보드이다. 화이트보드는 학생들에게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로 깔끔하게 정리한 수업내용을 보여주는 대신 교수가 직접 판서하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강의내용을 직관적이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해준다. 특히 태블릿을 연동하여 스타일러스 펜을 이용하면 쉽게 그림이나 도표를 그릴 수 있고, 형광펜 밑줄을 그어 강조하거나, ‘이 부분은 시험에 꼭 나오!’와 같이 유머러스하게 학생들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고, 손으로 쓴 듯한 자연스러운 필체를 표현할 수도 있다. 물론 화이트보드처럼 파워포인트나 PDF 문서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하이라이트 표시나 펜으로 판서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소소하지만 이런 디지털 도구의 비언어적 혹은 ‘감성적’ 측면을 이용한다면 학생들에게 대면수업과 같은 실재감을 줄 수 있으며 수업에 대한 집중력 또한 자연스럽게 증가하리라 생각한다.

필자는 2021학년도 1학기에 진행한 <영미시 입문>에서도 화이트보드를 상호 작용을 위한 도구로 적극적으로 사용했다. 먼저 이 수업은 영어영문학과 신입생이 영미 시문학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지식과 함께 주요 시학 용어와 개념들을 학습하는 전공 기초과목이다. 학기 전반부에는 르네상스, 신고전주의, 낭만주의 시학의 특징을 개괄하고, 후반부에는 모더니스트를 비롯한 현대 영미시인들을 집중적으로 소개한다.⁶⁾ 필자는 신입생들이 시문학 텍스트를 읽고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했으며, 이를 위해 줌의 화이트보드 기능을 활용했다. 화이트보드는 온라인 수업에서 판서를 편리하게 해주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장점은 학습자가 큰 심리적 부담 없이 소통을 위한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필자의 학생들은 이름이 자동으로 표시되는 줌의 채팅 기능보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은 채 간단한 질의응답에 참여할 수 있는 화이트보드를 훨씬 더 선호했다.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에서 교수자의 질문에 자발적으로 대답하거나 그룹 토론에 적극적이지 않은 이유는 아마도 소극성 때문이 아니라 많은 경우 발언자에게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을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필자는 화이트보드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익명의 상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예를 들면 낭만주의 시문학 공부를 하기 위한 예비 단계로 먼저 학생들에게 “여러분이 ‘낭만적’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인가?”라는 물음을 던지고, 1분 정도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준 다음 각자 떠올린 이미지를 화이트보드에 단어나 문장으로 표현하도록 했다. 놀랍게도 그동안 질의응답에 소극적이었던 학생들 대부분이 화이트보드에 자기 생각을 써 넣었다. 같은 방식으로 간단한 퀴즈 형식으로 윌리엄 워즈워스(William Wordsworth)의 “아이는 어른의 아버지”(“The child is father of the man”)와 같은 시구의 의미를 묻거나, 존 키츠(John Keats)의 “아름다움은 진리이고, 진리는 아름다움이다”(“Beauty is truth, truth beauty”)가 등장하는 시작품의 제목을 묻기도 했다. 이렇듯 줌의 화이트보드는 편리한 판서 기능인 동시에 온라인 수업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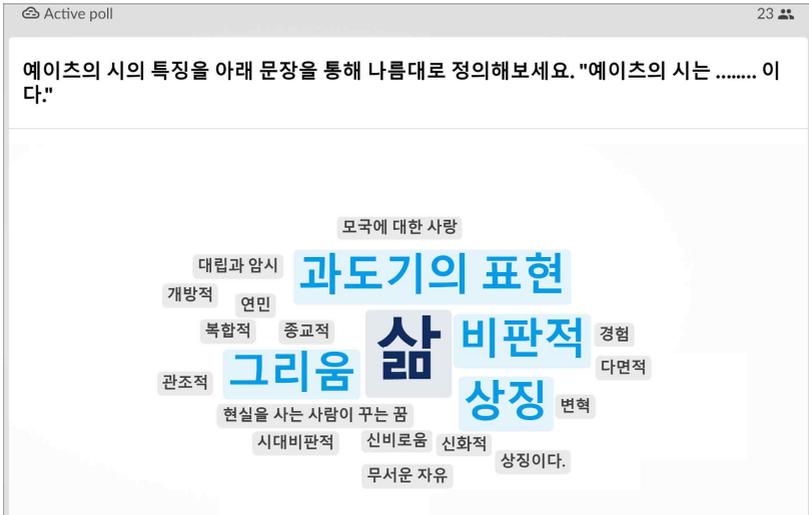
강력한 소통 도구로 이용할 수 있다. 학생들은 자신의 이름을 밝힐 필요가 없기에 교수의 물음에 좀 더 적극적으로 응답하게 되며, 이런 과정은 궁극적으로 자신이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소속감을 증진한다.

화이트보드 기능은 간단한 질의응답을 운용하는 데 효과적이지만 학생들이 써넣은 내용이 모두 한 화면 속에 제한되어 노출되는 단점이 있다. 특히 질의응답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많거나 응답 내용이 길어지면 토론의 효율적인 관리와 피드백이 어렵다. 이에 필자가 대안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간단한 설문조사나 익명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슬라이도라는 디지털 도구이다. <그림 1>과 <그림 2>의 예시에서 보듯이, 화이트보드와는 달리 슬라이도에서는 학생들의 답변을 하나씩 나열하거나 그룹으로 엮어서 보여주기에 교수가 응답 내용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피드백을 줄 수도 있다. 참여 방법 또한 매우 간단하여 학생들은 스마트폰 카메라로 QR코드를 스캔하여 접속하거나 PC의 경우 슬라이도의 공식 웹사이트(slido.com)로 들어가서 교수가 부여한 코드 번호만 입력하면 된다. 교수 또한 슬라이도의 콘텐츠를 파워포인트에 연동할 수 있기에 수업 중 공유화면을 여러 번 전환하지 않고 학생들과 대화하듯 매끄러운 수업 진행이 가능하다.

화이트보드가 간단한 설문이나 용어설명에 유용했다면 슬라이도는 학생들이 응답한 내용을 바탕으로 교수가 전공지식과 연관된 피드백을 줄 때 매우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필자는 <영미시 입문>에서 W.B. 예이츠(W.B. Yeats)를 19세기 영국 낭만주의와 20세기 모더니즘 시문학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는 중간자적 위치에 있는 시인으로 설명하며, 그의 초기작을 대표하는 「이니스프리 호도」 (“The Lake Isle of Innisfree”)와 「쿨 호수의 야생백조들」 (“The Wild Swans at Coole”), 그리고 후기작을 대표하는 「차가운 하늘」 (“The Cold Heaven”)과 「재림」 (“The Second Coming”)을 20세기 초반의 사회문화적 맥락과 함께 읽도록 했다. <그림 1>의 경우 예이츠의 “차가운 하늘”의 제목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학생들은 각자 자신이 이해한 의미를 자유롭게 적었고, 필자는 학생들의 응답 내용을 하나씩 읽어가며 텍스트와 함께 이전 수업에서 언급했던 예이츠와 모든 곤(Maud Gonne)과의 사



<그림 1>. 슬라이도의 “오픈 텍스트”(Open Text) 형식의 응답 예시. 예이츠의 시 「차가운 하늘」 (“The Cold Heaven”)에 관한 학생들의 서술형 응답이며 40명의 수강생 중 14명이 응답했다. 슬라이도 운영 초기에는 학생들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내용을 즉흥적으로 입력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학생들이 먼저 1분 정도 자기 생각을 충분히 정리한 다음 내용을 입력하도록 유도했다.



<그림 2>. 슬라이도의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 응답 예시. 에이즈 시문학의 특징에 대해 1분 정도 자기 생각을 정리한 다음 최종적으로 키워드 하나를 입력하도록 했다. 같거나 유사한 단어는 상대적으로 크게 표시되어 있다. 40명의 수강생 중 23명이 응답했다. 슬라이도는 익명성을 기반으로 하기에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었으나, 평균적으로 절반 정도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이 있었다. 응답 참여율을 지금보다 좀 더 높이고 무임승차를 줄이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필자의 다음 과제이다.

랑 이야기, 조국의 독립을 염원하는 아일랜드 시인으로서의 면모, 신을 향한 작가의 상상력, 신비주의 시인으로서의 비전, 전쟁으로 인한 혼란과 절망 등에 대해 생각해보도록 유도했다. 필자는 매 수업 <그림 1>과 같은 오픈 텍스트(Open Text) 형태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는데, 가령 ‘에이즈의 시 「쿨 호수의 야생백조들」의 자연관과 19세기 낭만주의 자연관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재림」에서 전쟁을 바라보는 화자의 시선을 특징짓는다면?’과 같이 매우 포괄적이고 분석적인 사유가 필요한 물음을 던지기도 했다.

슬라이드의 서술형 응답 외에도 <그림 2>처럼 학생들의 생각을 비슷한 내용으로 묶고 또 빈도수에 따라 크게 표시하는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 형식을 이용하기도 했다. 에이즈의 시문학의 특징을 정의해보라는 물음에 많은 학생이 “삶”, “상징”, “비판적”, “과도기”라는 단어를 제시했다. 이런 슬라이드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필자는 학생들이 에이즈의 시를 읽으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경시하거나 누락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파악한 다음 적절한 피드백을 줄 수 있었다. 예를 들면 <그림 2>에서 “삶”과 “그리움”을 제시한 학생들의 경우 에이즈의 시를 모드 곤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작품으로만 읽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그의 시를 조국인 아일랜드에 대한 애정으로 읽거나 신과 자연에 대한 철학적인 사색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점을 반복해서 상기시켜주었다.

필자는 학기 말에 온라인 설문조사 도구인 구글폼(Google Form)을 이용하여 학생들에게 비대면 수업을 위한 디지털 도구가 학습에 도움이 되었는지를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그림 3>에서 보듯 40명의 수강생 중 설문 응답에 참여한 12명의 학생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줌의 화이트보드나 슬라이드에서 익명으로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에 관한 학생들의 반응이었다. “익명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감상을 눈치를 보지 않고 말할 수 있어서 좋았다”, “디지털 도구로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것이 재밌었다”, “부담이 없고 더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어서 좋았다” 등 긍정적인 의견이 다수였

비대면 수업을 위해 사용한 슬라이도(slido), 마인드맵(mindmeister), 카훿(kahoot) 등 디지털 도구가 여러분의 학습과정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나요? 혹시 후배들을 위해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12 responses

마인드맵은 작품과 작가 정리에는 도움이 되었으나 줌과 함께 사용하기에는 프로그램이 무거워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외에는 다 만족스럽고 보람찬 한 학기였습니다. 한 학기 동안 감사했습니다 김유곤 교수님!!

익명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감상을 눈치보지 않고 말할 수 있어서 매우 좋았습니다. 또한 퀴즈로 복습한 것도 시험 연습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중 마지막 수업에서 마인드맵을 통해 큰 키워드들을 확실하게 정리한 것이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같이 게임참여 해서 배운 것들을 다시 테스트 하는 것이 진짜 재밌었습니다. 다음에도 더 많이 이용하시면 재밌게 공부할수 있는것 같습니다.

익명으로 한 점은 부담감을 덜어주어 수업이 훨씬 편하게 느껴져서 좋았습니다. 대신 하는 사람들과 계속 한다는 단점이 있을수도 있지만, 익명이 자신의 생각을 밝히기에 훨씬 편해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업 중 사용했던 도구 모두 너무 좋았고, 색다르기도 했고 재밌었습니다! 이러한 도구를 통해 좀 더 쉽게 의견을 공유하고 점검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저에게는 비대면 수업의 이점으로 생각됩니다. #풍성한 수업 만들어주시는 교수님, 한 학기 수고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덕분에 유익한 내용 많이 배웠습니다. 교수님께서도 여름 잘 보내세요!

저는 이 모든 매체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익명으로 하는 것으로 모든 이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에는 부족한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는 학우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었던 먼전 토론이 더 좋았습니다.

처음 접해봤던 슬라이도랑 카훿을 통한 학습은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덕분에 학습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온라인 강의에서 이런 다양한 디지털 도구를 적극 활용했던 것이 굉장한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특히 기말고사 정리 시간에 사용하셨던 마인드맵 프로그램이 저는 제일 좋았습니다! 시험별로 학생들이 의견을 모아 정리해봄으로써 놓친 부분도 다시 생각해보고 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확실히 조별토론을 무작정 하는것보다 재밌는 디지털도구로 서로의 의견을 나누게 재밌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특히 카훿은 게임형식으로 진행되어서 더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반 줌 채팅으로 치게되면 다른 학우들이 누가 이 의견을 썼는지 알 수 있어서 살짝 부담스럽고 부끄러웠는데, 슬라이도, 마인드맵, 카훿은 그런 부담이 없고 더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개인적으로 Slido가 시인과 작품에 대한 생각들을 익명으로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소회의실보다 강의를 듣는 다른 학생분들의 의견들을 글로 나누고, 교수님께서 즉각적으로 피드백을 해주셔서 좋았던 기억이 남습니다. 한학기동안 강의 알차고 재밌게 잘 들었던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수님.)

<그림 3>. 2021학년도 1학기 <영미시 입문>의 학기 말 강의평가 중 비대면 수업을 위한 디지털 도구 활용에 관한 학생들의 피드백이다. 40명의 수강생 중 12명이 설문에 참여했다.

다. 그러나 반대로 소수 의견이긴 하지만, “익명으로 [토론] 하는 것으로 모든 이들의 참여를 끌어내기에는 부족한 면도 있는 것 같다”, “[토론 참여를] 하는 사람들만 계속한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다” 등과 같이 아쉬움을 표현한 내용도 있었다.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학생들의 노력을 학습평가에 반영하는 일은 향후 필자가 수업 설계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필자의 요점은 화이트보드와 슬라이드 같은 디지털 도구를 활용함으로써 학생들이 익명성 속에서 큰 부담 없이 소통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영미시 입문>에 대한 총평을 해달라는 질문에 학생 두 명은 익명으로 진행한 토론 활동에 대해 다음과 같은 소회를 남겼다.

학생 A: 학기 초반에 수업을 진행하실 때 줌에서 소회의실을 열면 참여율이 그날그날 달라서 조금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강의 후반에 쓰신 슬라이드를 통해 개선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 B: 줌의 소회의실에서 그룹 토론을 할 때 토론이 생각보다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익명으로 할 때, 참여도가 훨씬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익명으로 다 함께 할 수 있는 토의시간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학우들에게도 부담이 적을 것 같습니다. 물론 참여하는 사람만 참여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겠지만 그건 소회의실 그룹토론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위와 같이 학생들 대부분 줌의 소회의실보다는 익명성을 보장하는 슬라이드가 상호작용에 좀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밝혔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있었다. 특히 일부는 토론에 참여하기보다는 수업 후반부에 교수가 정리해주는 내용만 받아적는 학생들도 있었다. 실제로 <그림 1>과 <그림 2>에서 스크린 상단 우측에 표시된 참여자 수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슬라이드의 질의응답이나 그룹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학생은 평균적으로 전체 수강생의 절반 정도였으며 질문의 내용이 어렵거나 응답할 내용이 많다고 느낄 때 참여율은 더 떨어지는 경향

이 있었다. 이런 점에서 ‘어떻게 하면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온라인 토론에서 참여율을 절반 이상으로 높일 수 있는가?’라는 물음은 앞으로 필자의 풀어야 할 과제이다. 예컨대 카훿(Kahoot)과 같은 게임 기반 학습 플랫폼도 참여율을 높이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슬라이드만 사용하기보다는 멘티미터(Mentimeter)와 소크라티브(Socrative) 등 교수자와 학습자가 익명으로 간단한 퀴즈와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디지털 도구를 번갈아 사용하는 것도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좋은 방법일 되리라 생각한다.

다음 장에서는 여기서 언급한 다양한 디지털 교육도구를 이용하여 어떻게 학생들의 협력학습을 효과적으로 촉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다. 특히 필자는 온라인 수업에서 학습자의 상호작용이 어떤 측면에서 자기주도적인 협업과 공동의 과업 수행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인 수업사례를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

III. 자기주도적 협력학습

‘멀리서 소통하기’와 함께 필자가 온라인 수업의 설계과정에서 가장 많이 고민했던 두 번째 키워드는 ‘자기주도적 협력학습’(Self-directed Collaborative Learning)이다. 교수의 강의에 주로 의존하는 전통적인 수업방식과는 달리 협력학습은 말 그대로 학생들이 조모임을 통해 과제를 수행하거나 그룹 토론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전문지식을 습득하는 일련의 수업 활동을 일컫는다. 교육공학 연구자 가운데 한순민은 「대학생을 위한 자기주도적 학습전략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라는 연구에서 조모임 활동과 같은 협력학습이 대면수업에서뿐만 아니라 온라인 수업에서도 효과적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연구의 결론에서 “활발한 조모임을 가능하게 했던 e-class 상의 온라인 학습활동에 대해 대다수 대학생들은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지적하며, “오프라인 수업에서는 제한적

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었던 협동학습이 온라인상에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선 협동학습으로 이어져 학습이 더욱 심화, 확대되는 기회를 갖게 하였으며 학생들로 하여금 학습활동에 대한 만족감도 높여준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한다(25).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와는 달리 실제 교육 현장에서 교수자의 수업 진행 경험은 다양하며, 심지어 매 학기 같은 방식으로 진행한 강의라도 학생들의 협업 수준은 참여자의 수와 성향, 물리적인 수업환경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가령 조모임에서 개별 학습자들의 성향이 잘 맞지 않거나 지나친 경쟁의 식으로 서로 협업이 매끄럽게 이루어지지 않기도 하고, 때론 무임승차 하는 조원으로 인해 불화가 일어나기도 한다는 점을 우리 모두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다.

자기주도적 협력학습은 학습자가 스스로 지식을 습득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분명 이상적인 교육방식이지만, 이를 비대면 온라인 수업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이지연 등은 성공적인 온라인 협력학습의 설계를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로 다음 세 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온라인 협력학습의 성공을 위한 핵심은 공동의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지적, 물리적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다. 여럿이 함께 수행할만한 가치가 있는 과업으로서 풍부하고 실제성이 있는 문제를 활용해야만 비로소 학습자들이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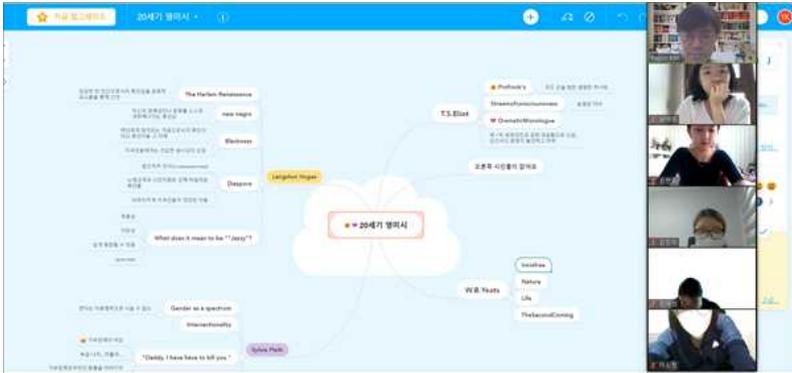
둘째, 협력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원할 수 있는 도구 설계가 필요하다. ... 최근에는 학습관리시스템에 기록되는 로그데이터를 활용하여 학습패턴을 파악하는 학습분석학적 접근을 통해 그룹의 상호작용 및 학습 진행 과정을 실증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도 가능하다.

셋째, 온라인 협력학습의 과정 중 형성적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은 교수설계감의 측면에서 그리고 인지적인 학습효과 측면에서 중요하므로, 언제 어떠한 형태의 중간산출물에 대하여 교수자가 어떠한 방식으로 피드백을 제공할 것인지를 사전에 계획하고 이를 학습자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관련 시사점을 제시해야 한다. (681-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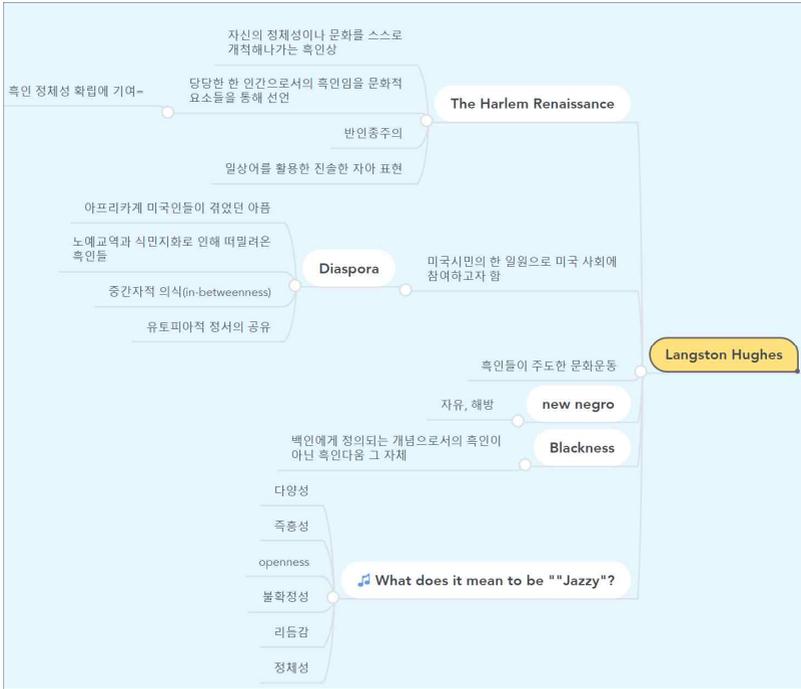
요약하면 온라인 수업에서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협력학습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과업 제시’, ‘모니터링 도구의 활용’, ‘시의적절한 피드백 제공’이 필요하다. 특히 수업의 운영자로서 교수자의 역할은 협업의 모든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다. 교수자는 조모임, 그룹 토론, 팀 프로젝트 활동 등에서 학생들의 활동을 방관하는 “동료 학습자”(fellow-learner)에 머물기보다는 효율적인 협업을 위한 환경을 제공하고 개별 학습자들 사이에 충돌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중재하는 “연결고리”(link)가 되어야 한다(Bates 132).

온라인 수업에서 자기주도적 협력학습 증진을 위해 사용한 디지털 도구는 사용자가 콘텐츠를 공유하고 실시간으로 편집할 수 있는 구글 문서(Google Docs)가 많이 쓰이며 최근에는 포스트잇과 유사한 형태인 패들렛(Padlet) 또한 온라인 수업에서 협업 도구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이와 더불어 줌에 탑재된 협업 도구인 소회의실 기능을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소회의실 기능의 경우 교수자가 제한된 시간 동안 다수의 회의실을 돌아다니며 모니터링하고 피드백을 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예컨대 참여자가 30명이고 각 소회의실에 6명을 배정했다고 가정해 보자. 교수자는 A, B그룹의 토론을 모니터링하는데 일정 시간을 할애하고 나면 나머지 C, D, E 세 그룹의 토론을 모두 확인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다섯 개의 그룹이 각자 토론내용을 요약하여 발표하는 방법도 있으나, 단순히 요약된 내용을 간접적으로 듣는 것과 현장에서 직접 토론에 참여하는 것은 학습 효과 측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이에 필자는 모든 참여자가 같은 공간 속에서 동시에 협업을 진행할 수 있고, 또한 교수가 협업의 전 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디지털 도구로 마인드마스터라는 온라인 마인드맵 프로그램을 즐겨 사용했다. 학생들은 수업내용을 키워드 중심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마인드맵의 내용을 함께 입력하고 확장해나가며 최종적으로는 거대한 지도의 형태로 일종의 학습공동체를 형성하게 된다. 예를 들어 <영미시 입문>의 경우 필자는 앞서 언급



<그림 4>. 학부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마인드맵을 작성하고 있는 모습. 화면 중앙의 “20세기 영미시”라는 교과목명 주위로 시인 네 명의 이름(W.B. 예이츠, T.S. 엘리엇, 랭스턴 휴즈, 실비아 플라스)이 중심 키워드로 네 개의 분면(分面)에 배치되어 있다. 네 명의 시인 이름 아래로 핵심적인 수업내용이 하위 키워드로 입력되어 있다.



<그림 5>. 마인드맵에 있는 네 명의 시인 가운데 랭스턴 휴즈 부분을 확대하였다. 시인의 이름 아래로 수업내용을 반영한 다섯 개의 키워드가 배열되어 있고, 학생들은 각 키워드에 자신이 이해한 내용을 간략히 적거나 때론 다른 학생이 써넣은 내용에 추가적인 설명을 남기기도 했다. 입력 후 교수가 함께 마인드맵의 내용을 검토하며 부정확한 내용이거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짚어주었다.

한 에이츠를 포함하여 T.S. 엘리엇(T.S. Eliot), 랭스톤 휴즈(Langston Hughes), 그리고 실비아 플라스(Sylvia Plath)에 관한 마인드맵을 그리도록 했다. <그림 4>에서 보듯 교수는 네 개의 구역에 각각 시인 네 명의 이름으로 중심 키워드를 만든 다음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하위 키워드를 배치 두었다. 학생들은 미리 배치된 키워드를 보고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자율적으로 채워나간다. 이 과정에서 일부 학생은 다른 학생이 써넣은 내용을 보충하거나 오류를 수정하는 등 자율적으로 학습내용을 모니터링하고 피드백을 주고받기도 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위해 마인드맵의 왼쪽 위에 있는 랭스톤 휴즈 부분을 확대한 <그림 5>를 보자. 대표적인 아프리카계 미국 시인인 휴즈는 1920년 흑인 문예부흥 운동인 할렘 르네상스(Harlem Renaissance)를 상징하는 작가이며, 특히 재즈 문화와 서구의 모더니즘 시문학을 접목한 “재즈 시”라고 하는 독특한 장르를 개척했다. 필자는 휴즈의 작품을 구성하는 사회문화적 문맥과 함께 “재즈 시”의 특성이 무엇인지 설명했고, 이런 학습 내용을 바탕으로 <그림 5>에서 보듯 “Harlem Renaissance”, “Diaspora”, “New Negro”, “Blackness”, “What does it mean to be Jazzy?” 등의 하위 키워드를 만들었다. 학생들은 각 키워드에 설명을 덧붙이며 큰 어려움이 없이 마인드맵을 완성했고 줌의 소회의실 활동과는 달리 매우 높은 집중도를 보였다. 필자는 수업 후 학생들에게 완성된 마인드맵의 공유링크를 전달하며 기말고사 준비를 비롯하여 강의내용을 복습할 때 마인드맵이 유용하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실제로 기말고사 후 실시한 강의평가에서 한 학생은 “마인드마스터를 통해 학생들이 의견을 모아 정리해봄으로써 놓친 부분도 다시 생각해볼 수 있어서 좋았다”라는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이와 유사하게 필자는 2020학년도 2학기에 <영미 생태문학 읽기>라는 과목에서도 마인드맵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협력학습을 유도했다. 이 수업은 영어영문학과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한 전공심화 과정으로 영미권의 생태문학을 소개하며, 학생들이 환경인문학(Environmental Humanities)의 비판적 시각을 공유하고 환경문제에 대해 윤리적 의식을 갖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수업은 국

제어(영어)로 진행하였으며 외국인 유학생들을 포함하여 모두 14명이 수강했다. 강의교재는 소설, 시, 수필 등 문학 텍스트를 중심으로 사진, 다큐멘터리 영화, 뮤직비디오, 만화영화 등 다양한 시청각 보조자료를 활용했다. 1주차 수업 주제인 웬델 베리(Wendell Berry)의 수필 「먹는 즐거움」 (“The Pleasures of Eating”, 1990)과 윤리적 섭생을 시작으로 마이클 폴란의 『잡식동물의 딜레마』 (*The Omnivore's Dilemma*, 2006)에 나타난 현대 소비주의 문화와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 다큐멘터리 영화 『푸드 주식회사』 (*Food, INC*, 2008)를 통해 살펴본 비윤리적인 현대 음식산업의 문제, 레이첼 카슨(Rachel Carson)의 『침묵의 봄』 (*Silent Spring*, 1962)을 통해 드러나는 무차별적인 DDT 살충제 살포와 예상치 못한 인간과 자연 생태계의 파괴, 나오미 클라인(Naomi Klein)의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 (*This Changes Everything*, 2014)를 통해 본 약탈적 글로벌 자본주의 시스템과 기후변화, 자메이카 킨케이드(Jamaica Kincaid)의 『어느 작은 섬』 (*A Small Place*, 1988)에 나타난 식민주의와 윤리적 에코 투어리즘이라는 주제를 순차적으로 다루었으며, 하나의 주제가 끝나면 다음 주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마인드맵을 통해 학습한 내용을 상기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결과적으로 학생들은 교수가 직접 학습자료를 설명할 때보다 마인드맵과 같이 자신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지식에 더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때론 마인드맵 작성을 게임처럼 생각하며 몰입하는 모습을 보였다.

<영미 생태문학 읽기>에서는 특별한 디지털 도구를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씨앗 관찰일지’(seed observation journal)를 작성하여 공유하는 워크숍 형태의 자기주도적 협력학습 또한 실험적으로 진행하였다. 워크숍은 여러 준비 단계를 거치는데, 먼저 학생들이 각자 일정 기간 씨앗을 기르며 관찰일지를 작성한 다음 작성한 일지 내용을 바탕으로 온라인 발표회를 진행하는 것이다. 이후 대학의 학습관리시스템을 통해 학생들이 서로 관찰일지를 공유하며 평점과 짧은 감상평을 남기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 워크숍은 개별 학습자의 경험을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일종의 개인 맞춤형 학습(Personalized Learning)인 동시에 ‘식물 기르기

Green Workshop II
Introduction to Environmental Literature (Fall 2020)

Make a Tiny Garden, Grow Your Imagination

Congratulation! This assignment is designed to help you learn about plants. Check your seeds in the envelope and google for searching the best way to cultivate them and care for them. There are two different kinds of herbal seeds:

- Sprouts (Brassica; 비타민채, 다채)
- Alfalfa (새싹채소)

STEP 1: Get familiar with how to plant and care for the chosen plants. For example, if you want to grow “basil”, you should know that basil grows well in well-drained, moist soil, and mostly in warm environments.

STEP 2: Consider recycling a plastic bottle (such as “used coffee cup”) as a miniature garden or a tiny greenhouse.



STEP 3: Create your observation journal to track the seed’s growth. Enjoy watering your seeds and making predictions about what it might look like as it grows. I suggest observing your seeds for about 1-2 weeks (10-15 days). Be creative: you can draw a picture, write down your feelings, or just record your observations.

STEP 4: Your green plants are all edible. You can enjoy them as a salad or add it into your veggie rice bowl (bibimbap).

*** IMPORTANT: Seed might be coated with some fertilizer; so do NOT eat the seed itself. Only the green parts are edible.**

Come up with your “Seed Observation Journal” by October 12. Everyone will be given 5 minutes to share your experience on the Tuesday (Oct 13) class.

Everyone, GOOD LUCK!

의 즐거움'이라는 주제로 생태중심적(ecocentric) 사유를 온라인을 통해 공유한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협력학습(Collaborative Learning)이기도 하다.

워크숍의 구체적인 내용은 먼저 교수가 비빔밥용 새싹채소 씨앗을 봉투에 담아 워크숍 과제 참여를 원하는 학생들에게 우편으로 보낸다. <그림 6>은 '씨앗 관찰일지' 과제를 설명한 유인물이다. 과제의 주제와 목적 설명을 포함하여 씨앗을 받아서 키는 방법과 새싹채소 기를 때 주의사항, 관찰일지 작성 방법, 과제 제출 방법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앞서 이지연 등이 성공적인 온라인 협업을 위해 제시한 세 가지 원칙 가운데 '구체적인 과제 제시'에 해당한다. 유인물의 내용을 보면, 씨앗을 받은 학생들은 반드시 재활용품을 사용하여 씨앗을 길러야 하며 씨앗이 자라는 과정을 열흘에서 보름 정도 지켜보며 자유로운 형식으로 '씨앗 관찰일지'를 작성한다. 이후 학생들은 온라인 수업 시간에 각자 3분 정도 자신이 작성한 일지의 내용을 소개하며 식물 기르기의 경험과 생태중심적 사유를 공유하게 된다. 발표 후에는 학습관리시스템을 통해 학생들이 서로의 일지를 읽고 별점 부여와 함께 간단한 감상평을 적는 동료평가(peer review)를 수행하도록 했다. 이때 평가의 기준은 참여자가 새싹을 성공적으로 잘 길렀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세심하게 관찰하였는지를 보는 것이다. 설명 중간에 새싹이 시들어버렸더라도 매일 식물을 관찰하며 다른 종의 삶에 관심을 기울이는 과정 자체를 성실히 기록하는 일이 평가의 가장 큰 기준이었다. <그림 7>의 예시에서 보듯이, 워크숍에 참가한 학생들 대부분은 식물에 대한 관찰과 함께 자기 내면의 변화 또한 세심하게 기록했다. 필자는 학생들의 일지와 동료평가를 점검하며 자연스럽게 협업의 과정을 모니터링할 수 있었다. 또한 <그림 8>의 경우처럼 식물이 잘 자라지 않아 고민하는 학생에게는 적절한 워크숍의 의도와 평가기준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과제를 완성하도록 독려했다.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온라인 교육환경 속에서 대면수업과 같은 방식으로 친밀감을 형성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온라인 수업에서 다양한 협

10/9 (금) D-9



진작 먹었어야 했지만 계속 키우고 싶은 마음에 수확 날짜를 미뤘으나 브로콜리가 너무 커버렸는지 자기 몸을 가누는 게 힘들어 보여서 오늘 먹었다. 새싹을 먹기 위해 키친 타월에 단단히 얹힌 뿌리들을 가위로 잘라내는 것도, 연약한 채소를 거센 물에 씻어내서 식탁 위에 올리는 건 마음이 좋진 않았다. 직접 키운 채소를 먹는 건 처음이었는데, 여태껏 사먹었던 채소를 먹는 것과는 감회가 새로웠다.

<그림 7>. ‘씨앗 관찰일지’의 예시. 이 학생은 씨앗의 발아 순간부터 새싹채소가 자라는 모습을 매일 아침과 저녁 두 번씩 관찰하였다. 일지에는 식물의 물리적인 상태를 기록했을 뿐 아니라 ‘식물이 목마른 순간은 언제일까?’와 같은 식물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사색의 과정 또한 기록하였다. 위크숍의 온라인 발표회에서 새싹을 길러 먹으며 웬델 베리(Wendell Berry)가 그의 에세이 「먹는 즐거움」 (“The Pleasures of Eating”)에서 제시한 “책임 있게 먹는 일”(Eating responsibly)이 즐거울 수 있음을 경험했다는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Day 6

I was astonished on day 6, as it seemed like every time I left my dorm room and came back, more plants had evolved and grown again. On day 6 I decided to take off the wet paper towel on top, so that all of the seeds could get the most sunlight. There were still some seeds that had not evolved and I started to think that they would simply stay the way they were then.



<그림 8>. ‘씨앗 관찰일지’의 또 다른 예시. 이 외국인 유학생은 씨앗이 발아하던 순간부터 새싹채소가 자라는 모습을 매우 성실하게 기록했다. 그러나 자신의 기숙사 방이 햇볕이 잘 들지 않는 북쪽을 향해 있었기에 새싹이 잘 자라지 않아서 슬프다는 말과 함께 결국 관찰일지를 8일째에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식물을 살리기 위한 고민과 노력을 세세하게 기록하였기에 온라인 동료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학생들은 동료평가를 통해 서로 일지의 내용을 비교하며 자연스럽게 식물에 관한 정보를 공유했다.

교수에게 남기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쓰시오.

6 responses

발표마다 코멘트를 자세하게 해주셔서 좋았습니다. 한학기 동안 다양한 주제로 수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문과 수업중 처음으로 참여하는 수업이었습니다. 소수 인원으로 진행되어 더욱 깊이 있는 의견공유가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첫번째 조별과제를 하며 처음보는 같은과 선배랑도 친해지는 계기가 되어 좋았습니다. 처음 수업에 들어갔을 때 이런 방식으로는 원가를 배우기 보다는 그냥 쉬쉬쉬엄 재밌게 하면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께서 학생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신 커리큘럼이 주차가 지나면서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던거 같습니다.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을때, 배달음식을 시켜먹을 때 야 수업시간에 이런거 배웠었는데..하는 생각이 스칩니다. 물론 웬델베리가 이렇게 말했으니까 나도 실천해야지 와 같은 행동들을 하기는 어렵지만 그런것을 생각이라도 할 수있게 되어 스스로도 기쁩니다. 다른 수업들의 내용은 책상에 앉아있을 때만 그 과목에 대해서 생각했지만 이 수업에서 배운 내용들은 일상에서 생각이 계속 났었습니다. 다음 학기에도 이런 비슷한 강의를 열어주시면 꼭 수강하고 싶습니다. 한 학기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를 시킬 때 소수 몇 사람 위주로 시키는 것 같아서 기회가 공정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기회를 공정하게 돌아가면서 질문하고 발표시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강의와 워크숍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응원이 되는 좋은 코멘트 남겨주셔서 위축되지 않을 수 있었어요! 가끔은 냉정한 코멘트도 괜찮을 것 같아요! 부족한 부분을 말씀해주시면 겸허히 받아들이고 노력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한 학기동안 수고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감으로 배우고 느낄 수 있던 수업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아마 이 수업을 통해 배운 것은 잊히지 않고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어떠한 주제에 대해 다수에게 정답이라고 인정받을 의견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것이 아닌 저만의 의견을 생각해보고 또 그것을 용기내어 표현해보는 것이 아이러니하게도 대학 생활 이후 저에게는 참 익숙치 않은 일이 되었고, 이 수업을 통해 극복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아직 부족하지만 이 수업과 교수님의 말씀들이 그러한 사실을 깨우치고 연습을 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기에 감사드립니다.

다른 강의보다 저에게 특별했고, 남는 것이 많은 강의였습니다. 한 학기동안 고생 많으셨고, 감사했습니다!

<그림 9>. 2020학년도 2학기 <영미 생태문학 읽기> 온라인 강의평가 결과 중 수업 전반에 대한 학생들의 소회이다. 구글폼을 이용한 설문에 14명의 수강생 중 6명이 참여했다. 성공적인 협력학습을 위해서 교수자는 개별 학습자의 연결고리로서 적절한 중재와 피드백을 해줄 필요가 있다. 이에 필자는 워크숍 발표회를 진행하며 학생들에게 관찰일지의 목표가 인간중심주의에서 벗어나 생태중심적 사유를 공유하는 것이라는 점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설명했다.

업 활동을 설계할 수 있다면 학생들의 집중도를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타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는 긍정적인 상호의존성과 공동체 의식을 증진하는 일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유로 필자는 <영미 생태문학 읽기>에서 자기주도적 협력학습을 증진하기 위해 마인드마이스터 같은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였을 뿐 아니라 ‘씨앗 관찰일지’처럼 온라인 워크숍과 동료평가를 혼합한 수업 모델 또한 설계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지연 등이 성공적인 온라인 협업을 위해 제시했던 세 가지 요소인 ‘구체적인 과업 제시’, ‘모니터링 도구의 활용’, ‘시의적절한 피드백 제공’을 실천하려고 애썼으며 어느 정도는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림 9>에서 보듯 학기 말 강의평가에서 첫 번째와 네 번째 학생은 교수가 피드백과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어서 좋았다는 소회를 밝혔고, 두 번째 학생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조별 과제와 협업이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으나 환경문제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 말했다. 그리고 온라인 발표회에서 흥미로운 일지를 소개한 소수의 학생에게 자연스럽게 관심이 집중되었기에, 세 번째 학생은 워크숍에 대해 다소 “기회가 공정하지 못했다”라고 평가했다. 이처럼 내성적이거나 소극적인 성향의 학생들이 느낄 수 있는 상대적 소외감은 교수자인 필자가 앞으로 협업과제 설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IV. 맺으며: 팬데믹과 “돌봄의 교수법”

2021년 하반기에 접어든 현재 사람들은 코로나 백신이 세계 곳곳에 보급되어 팬데믹 상황이 개선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으며, 더불어 대학의 수업 또한 응급의 단계를 벗어나 다시 안정을 되찾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대학교육이 정상화되더라도 코로나 시국의 온라인 교육의 경험은 큰 자산이 되어 장기적으로 많은 대학 연구자들의 수업 설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리라 생

각한다. 필자가 <영미시 입문>과 <영미 생태문학 읽기>에서 활용한 화이트보드, 슬라이드, 마인드마스터를 포함하여 카훗, 멘티미터, 소크라티브, 패들렛 등은 팬데믹 이후의 대면수업에서도 상호작용과 협력학습을 유도하는 도구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예를 들어, 대면수업을 진행하는 교실에서 예이츠의 「이니스프리 호도」라는 시를 강독한다고 상상해보자. 교수는 시를 해석한 뒤 학생들에게 스마트폰으로 자신의 감상을 입력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프로젝트 화면을 통해 공유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의견에 피드백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조별 협업이 필요한 과제의 경우 팀프로젝트 관리를 도와주는 트렐로(Trello)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사용한다면 학생들이 파일을 공유하거나, 타임라인을 설정하고, 게시판 형태로 일목요연하게 조원들의 글을 정리하는 등 좀 더 효율적이고 즐겁게 협력학습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교수 또한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학생들이 올린 게시글을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댓글 형태로 간단한 피드백을 줄 수 있다. 덧붙여 단원 복습과 같이 학생들이 수업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 카훗과 같은 게임 기반 학습 플랫폼을 활용한다면 수업이 퀴즈쇼처럼 흥미진진하게 변하기에 학생들의 몰입도가 더 높아지리라 생각한다. 이런 점에서 필자는 코로나 이후를 대비한 교육공학계의 교수법 연구와 함께 각 분과학문 분야에서도 온라인 수업의 다양한 사례공유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대면수업의 장점이라 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상호작용과 협력학습을 온라인 수업에서 구현하기 위해서 온라인 교육을 위한 디지털 도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했고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필자의 소속 대학의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교수법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수강한 것이 온라인 수업 설계과정에서 큰 도움이 되었음을 밝힌다. 특히 교수자와 학습자의 교감 방법, 온라인 토론 운영 방법, 게이미피케이션(gamification)을 통해 수업내용 피드백하기, 온라인 수업에 특화된 각종 디지털 도구의 활용법 등을 배우는 과정에서 온라인 수업 설계에 관한 아이디어를 많이 얻을 수 있었다.

온라인 수업을 위한 교수법은 팬데믹과 같은 긴급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게 해줄 뿐 아니라 대면수업의 지평을 확대하고, 궁극적으로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게 될 것이다. 필자는 <영미시 입문>과 <영미 생태문학 읽기>를 실시간 온라인 강의로 진행하며 보스컬트가 제안한 “돌봄의 교수법”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여러 번 하게 되었다. 필자가 익명으로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슬라이드를 즐겨 사용한 주된 이유는 익명성을 선호하는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줄여주면서 동시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였다. “돌봄의 교수법”을 위해서는 익명성을 활용한 소통 이외에도 학생들의 경제적 상황, 장애, 젠더(성평등), 언어, 지역성, 다문화, 그리고 국제어 수업의 경우 인종과 국적 등 매우 다양한 요소들을 온라인 수업의 설계과정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을 위한 배려는 비단 원격교육의 상황에서뿐만 아니라 코로나 이후의 대면수업 환경에서도 여전히 중요하게 다뤄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온라인 수업의 목적은 단순히 테크놀로지를 능숙하게 잘 다루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경제적,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있는 학생들이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열린 교육환경을 만드는 데 있다. 따라서 앞으로 국내 대학사회에서 “돌봄의 교수법”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 연구와 다양한 수업사례의 공유 또한 일시적인 것이 아닌,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이라는 큰 틀에서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지속되기를 바란다.

Notes

- 1) 자세한 통계자료는 유네스코의 홈페이지 게시된 「COVID-19: 대학의 재개방과 재고하기: 유네스코 국제위원회의 고등교육에 관한 조사」 (“COVID-19: Reopening and Reimagining Universities. Survey on Higher Education through UNESCO National Commissions”)를 보라. 이외에 팬데믹으로 인한 초중등교육계의 영향에 관한 전 지구적 통계자료는 유니세프(UNICEF)의 보고서인 「COVID-19와 학교 폐쇄: 일 년간의 교육 중단」 (“COVID-19 and School Closures: One Year of Education Disruption”)을 참고하라.
- 2) 팬데믹 초기 온라인 교육으로의 긴급한 전환 과정에서 교수자와 학습자가 겪은 혼란에 관한 국내외 연구는 방대하다. 국외 연구의 경우, 2021년 출판된 린다 다니엘라(Linda Daniela) 등의 『팬데믹 시대의 원격교육: 쟁점, 의미, 그리고 최선의 실천』(Remote Learning in Times of Pandemic: Issues, Implications and Best Practice), 로이 찬(Roy Chan) 등의 『COVID-19 기간에 고등교육의 온라인 교수학습: 국제적 시각과 경

- 힘』(*Online Teaching and Learning in Higher Education during COVID-19: International Perspectives and Experiences*), 주디 맥킴(Judy McKimm) 등의 『고등교육에 대한 시각: COVID-19 팬데믹의 영향』(*Perspectives on Higher Education: Impact of the COVID-19 Pandemic*) 등을 참고하라. 국내의 경우 대표적으로 국회입법조사처가 조인식의 「대학원 원격수업 관련 쟁점과 개선과제」(2020)라는 보고서를 통해 대학의 비대면 교육의 특징과 다양한 논쟁을 정리하였다. 이외에 교육공학 연구의 경우, 이지연 등의 「코로나19 시대 온라인 수업의 도전과 과제」(2020), 홍성연 등의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원격교육환경에서 학습성과 영향 요인 분석」(2020), 조은순의 「포스트코로나 시대 비대면 수업을 위한 교육공학의 역할과 과제」(2020)를 참고하라.
- 3) ‘팬데믹이 대학의 교육환경에 미친 영향’이라는 연구주제는 국가와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통계자료와 학술논문이 전세계에서 꾸준히 발표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연지영 등의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비교과 프로그램의 운영 실태 및 개선 방향」(2021), 신소영 등의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수업 경험 분석: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2021), 사넬 디파수필 등의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국내 대학생의 온라인 학습 현황」(2021) 등을 참고하라.
 - 4) 온라인 교육 이론과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수업설계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은 주로 A.W. 베이즈(A.W. Bates)의 『디지털 시대에 가르치기』(*Teaching in a Digital Age*)와 이지연 등의 「코로나19 시대 온라인 수업의 도전과 과제」를 참고하였음을 밝힌다. 특히 이지연 등은 팬데믹 시대 한국의 온라인 교육이 과거와는 달리 전면적이고 비가역적인 변화임을 지적하고 성공적인 학습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디지털 플랫폼에 맞춘 “차별화된 상호작용 설계”, “공동과업 수행과 협력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지원”, 그리고 “교수자의 피드백 설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와 관련된 후속 연구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672-74).
 - 5) 2020년 3월 팬데믹 발생으로 인해 원격수업을 위한 기반이 구축되지 않았던 한국의 교육기관들은 학사운영의 어려움을 겪었으며, 특히 실시간 수업에서 개인정보 유출, 수업의 질 하락, 등록금 반환 문제 등에 관한 다양한 사회적 쟁점들이 발생하였다. 이에 대한 분석은 김상미의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교육에 관한 국내 언론보도 기사 분석」을 참고하라.
 - 6) 본 논문에서 온라인 영문학교육의 사례로 소개하는 필자의 <영미시 입문>과 <영미 생태문학의 읽기> 두 교과목의 강의개요와 구체적인 수업계획표는 부산대학교 홈페이지의 ‘학부수강편람’에 게시되어 있으며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다.

인 용 문 헌

- 김상미.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교육에 관한 국내 언론보도기사 분석」.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 21권 6호, 2020, 1091-100쪽.
- 샤넬 디파수필 외.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국내 대학생의 온라인 학습 현황」. 『인문사회 21』, 12권 4호, 2021, 1265-76쪽.
- 서정아.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온라인 교양영어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연구」. 『인문사회 21』, 12권 4호, 2021, 3041-54쪽.
- 신소영 외.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수업경험 분석: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인문사회 21』, 12권 3호, 2021, 427-42쪽.
- 연지영 외.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비교과 프로그램의 운영 실태 및 개선 방향」. 『인문사회 21』, 12권 3호, 2021, 2245-58쪽.
- 원영선. 「“응급 원격수업”: 19세기 영문학 전공 교과목의 ‘온라인수업’ 변환사례」. 『19세기 영어권 문학』, 24권 2호, 2020, 7-34쪽.
- 이지연 외. 「코로나19 시대 온라인 수업의 도전과 과제」. 『교육공학연구』, 36권 3호, 2020, 671-92쪽.
- 장선영. 「현행 영어교육과 영문학: 코로나 이후 온라인 토론 영미시 수업」. 『영미문학교육』, 24권 3호, 2020, 123-48쪽.
- 조은순. 「포스트 코로나시대 비대면 수업을 위한 교육공학의 역할과 과제」. 『교육공학연구』, 36권 3호, 2020, 673-713쪽.
- 조인식. 「대학원 원격수업 관련 쟁점과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현안분석』, 147호, 2020, 1-20쪽.
- 한순민. 「대학생을 위한 자기주도적 학습전략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아시아 교육연구』, 7권 3호, 2006, 1-30쪽.
- 홍성연 외.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원격교육환경에서 학습성과 영향 요인 분석」. 『교육공학연구』, 36권 3호, 2020, 957-89쪽.

- A.W. Bates. *Teaching in a Digital Age: Guidelines for Designing Teaching and Learning*. Tony Bates Associates, 2019.
<https://opentextbc.ca/teachinginadigitalage/>.
- Bozkurt, Aras, et al. “A Global Outlook to the Interruption of Education due to COVID-19 Pandemic: Navigating in a Time of Uncertainty and Crisis.” *Asian Journal of Distance Education*, vol. 15, no. 1, 2020, pp. 1-126.
- Chan, Roy Y., Krshina Bista, and Ryna M. Allen. *Online Teaching and Learning in Higher Education during COVID-19: International Perspectives and Experiences*. Routledge, 2021.
- Daniela, Linda and Anna Visvizi. *Remote Learning in Times of Pandemic: Issues, Implications and Best Practice*. Routledge, 2021.
- Hodges, Charles, et al. “The Difference Between Emergency Remote Teaching and Online Learning.” *Educause Review*, 27 March 2020.
<https://er.educause.edu/articles/2020/3/the-difference-between-emergency-remote-teaching-and-online-learning>.
- Kamenetz, Anya. “‘Panic-gogy’: Teaching Online Classes During the Coronavirus Pandemic.” *NPR News*, 19 March 2020.
<https://www.npr.org/2020/03/19/817885991/panic-gogy-teaching-online-classes-during-the-coronavirus-pandemic>.
- McKimm, Judy, et al. *Perspectives on Higher Education: Impact of the COVID-19 Pandemic*. Independently Published, 2020.
- UNESCO. “COVID-19: Reopening and Reimagining Universities. Survey on Higher Education through UNESCO National Commissions.” January 2021, pp. 1-37.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378174>.

UNICEF. "COVID-19 and School Closures: One Year of Education Disruption."

March 2021. pp. 1-18.

<https://data.unicef.org/resources/one-year-of-covid-19-and-school-closures/>.

Zimmerman, Jonathan. "Coronavirus and the Great Online Learning Experiment." *The Chronicle of Higher Education*, 10 March 2020.

<https://www.chronicle.com/article/coronavirus-and-the-great-online-learning-experiment>.

Abstract

**Searching for a “Pedagogy of Care”:
The COVID-19 Outbreak and Challenges of Teaching
English Literature Online in South Korea**

Yugon Kim

Pusan National University

Due to the threat of COVID-19, many colleges and universities have recently begun to offer online classes to help prevent the spread of the coronavirus. Online education in the age of the pandemic can be best described what Charles Hodges calls “Emergency Remote Teaching” (ERT), a term that suggests the paradigm shift of instructional delivery during a crisis. This paper provides a case study that shows the challenges of teaching English literature online in South Korea. The move to ERT requires that instructors take more control of the course design and implementation process, but at the same time, they have varying levels of digital fluency, especially in the use of educational tools for distant learning. By sharing my experience of teaching English literature course with emerging digital learning tools such as Zoom Whiteboard, Slido, and Mindmeister, this paper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online teaching pedagogies in order to promote student interaction in the virtual classroom and manage effective collaborative learning. Ultimately, I suggest a “pedagogy of care” for online literature education in South Korea, emphasizing that instructors should be more attentive to students who have experienced various social, economic, and emotional challenges in this uncertain time.

Key Words: Emergency Remote Teaching, COVID-19, Pandemic, Online Literature Education, Pedagogy of Care

논문접수일: 2021.10.06

심사완료일: 2021.10.13

게재확정일: 2021.10.27

이름: 김유곤

소속: 부산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조교수

주소: 부산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2

이메일: yugonkim@pusan.ac.kr